

<金仙覺> 異本研究

강 문 중*

-
- | | |
|----------------------------------|------------------------|
| I. 서론 | IV. <金仙覺> 異本の 변모와 그 의미 |
| II. <金仙覺>, <장두영전>, <장풍운전>의
관계 | V. 결론 |
| III. <金仙覺> 異本研究 | |
-

I. 서론

<金仙覺>은 18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15回로 된 回章體 漢文長篇 小說이다. 이 작품은 한국고소설학회 제6 차 학술대회에서 강문중과 김준형의 발표로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 강문중은 번역본인 국문본 <장두영전> 중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과 박순호 소장본을 대상으로 번역양상을 고찰하고, 이어 <금선각>의 구조적 특징을 비롯해서 내용의 특징을 살폈다. 그 결과 박순호 소장본 <장두영전>의 번역양상은 완역에 가깝고,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 <장두영전>인 경우는 축약이 심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즉 사건과 사건이 긴장감 있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완화시켜버리는 각종 문예문과 기타 내용들을 과감하게 축약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고난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가정 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통합과정 수료, 국어국문학 전공.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거의 완역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번역양상이 흥미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구조적 특징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이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결합하여 병렬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고, 내용적인 특징을 살피는 부분에서 당시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보았다. 그리고 서론에서 차후의 연구를 기약하면서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이본임을 언급했다.¹⁾

김준형은 다양한 이본의 발굴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한문본 <금선각>의 기록을 통해 작자를 밝혀냈다. 이 점은 대단한 의의를 지닌다. 김준형은 우선 <금선각>이 영웅소설 형성 동인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문본 <금선각>과 국문본 <장두영전>, <장풍운전>의 관련양상을 살폈다. 여기서 세 작품의 동질적인 면과 차별적인 면을 서술하였고, 나아가 <금선각>과 <장풍운전>의 선후문제를 논했다. 그 결과 <장풍운전>을 <금선각>의 향유 독자층에 의해 새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²⁾ 그러나 필자는 학회발표에서 토론과 논문을 통해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이본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선각>이 <장풍운전>으로 변모하면서 정착되는 과정을 정치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 작품의 비교를 통해 관계를 규정한 후 각 이본의 존재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 각 이본의 계열 형성과 그 형성 과정을 통해 <장풍운전>이 독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나아가 <금선각> 이본의 변모와 그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1) 강문중, 「<金仙覺> 연구」, 『청계논총』, 5·6합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2) 김준형, 「<金僊覺> 발굴과 소설사적 의의」, 『古小說研究』, 18집(2004). 특히 이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 고소설사의 일반적 흐름을 필자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언급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고소설사에서 한문본이 먼저 창작되고 난 후 국문으로 번역되어 국문독자층에게 널리 향유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 예외가 있다면 <구운몽>, <사씨남정가>, <玉麟夢> 정도의 경우가 ‘국문본→한문본’이라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19세기 말 한문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한문본→국문본’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물론 지금도 논쟁 중이고 자료의 발굴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의 연구결과 수준에서 ‘국문본→한문본’의 방향을 고소설사의 흐름으로 일반화시키는 김준형의 지적은 다소 문제가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II. <金仙覺>, <장두영전>, <장풍운전>의 관계

<金仙覺>은 김준형 소장본에 있는 ‘陰城進士申公景源著’라는 기록과 유재영 소장 복사본의 발문을 통해 저자 및 창작시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김준형의 연구에 의하면 申景源은 고려 신씨 가문에서 1722년에 태나 1763년에 사마시에 합격했으며, 1797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유재영 소장본 발문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은 ‘壬寅年(1782)’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³⁾ 보다 정확한 자료의 출현이 없는 한 이 기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⁴⁾ 이러한 <금선각>을 번역한 국문본이 바로 <장두영전>이다.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張斗英’이라는 이름에서 기인했다. 물론 <장두영전>인 경우 <금선각>을 그대로 번역한 작품이므로 이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장풍운전>은 과연 <금선각>의 이본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또 다른 계열의 이본이다.

고소설 연구사에서 아직까지 이본의 개념과 범위를 정치하게 다룬 연구결과가 없다. 주로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이본을 선정해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제목은 이본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고소설 중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서로 다른 경우와 전혀 다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같은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이본의 범위로 볼 수 있을까? 이 글에서 이본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정치하게 다룰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풍운전>을 <금선각>의 이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작품 구조의 동일성을 들 수 있다. <금선각>은 완벽한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이 서로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장풍운전>에서도 역시 그 구조가 동일하다. 다만 <금선각>에서는 그 경계선이 뚜렷한 반면 <장풍운전>에서는 두 유형의 경계가 허물어져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번역본이라 할 수 있는 단대본 <장두영전>에서도 <장풍운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품의 큰 틀을 이루는 중심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3) 김준형, 앞의 논문, 145~149쪽.

4) 특히 저자와 창작 시기가 밝혀지면서 이 작품의 국적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일어나는 사건이 동일하며, 그 사건의 진행과정 및 해결 방법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 주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character)가 일치한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그 이름까지 동일하다. 그러나 <금선각>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인 ‘두영’이 <장풍운전>에서는 ‘풍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조부인’이 <장풍운전>에서는 ‘유부인’으로 바뀐다. 그러나 그들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를 비롯해서 역할과 행동은 두 작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관계 설정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넷째, 두 작품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분량의 배분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준형의 연구(2004)에서 <금선각>, <장두영전 단대본>, <장풍운전 완판본>, <장풍운전(경판본)>의 유사성을 설명하면서 근거로 들었다. 즉 전반부와 후반부 그리고 후일담의 이야기 분량을 배분하는 부분까지도 <금선각>과 <장풍운전>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이처럼 <금선각>과 <장풍운전>은 구조, 내용, 등장인물들의 캐릭터(character), 분량의 배분 등의 면에서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의 지명, 사건의 명칭, 사물명 등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영향을 받아 새로 생성된 작품이 아니라 異本이라 할 수 있다.⁶⁾ 이러한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아래에 <금선각>, <장두영전>, <장풍운전>의 관계를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이본관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⁸⁾

5)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주인과 노비 등등의 모든 관계의 설정에서도 <금선각>과 <장풍운전>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6) 김준형, 앞의 논문, 150~152쪽.

7) 김준형은 세 작품의 동질적인 면모를 서술하면서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서사적 구조가 동일하고, 내용이 동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그 내용을 배분한 %까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형은 ‘생성된 작품’ 혹은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다. 물론 차별적 면모를 보조적 인물의 역할의 거세 및 축소와 문예문의 역할의 축소 및 생략 그리고 후일담의 축약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장풍운전>이 이본이 아니라 새로 생성된 작품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선후문제를 다루면서 불교적 응보관을 들어 <금선각>과 <장풍운전>의 선후 문제를 규정하고 이 두 작품은 별개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불교적 응보관은 두 작품 모두에게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한다. 김준형이 불교적 응보관을 들어 설명한 부분은 사건의 전후를 살필 수 있게 하는 인과관계의 치밀함의 有無로 봐야 한다. 어쨌든 차별적인 면모에서 예로든 근거와 선후문제에서 예로 든 근거들은 한문본의 번역과정에서 혹은 축약된 형태의 이본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 봐야 할 것이다.

<표 1>

이본 화소	金仙覺	장두영전	장풍운전 완판 36장본	장풍운전 경판 31장본
태몽	선관이 내려와 北斗의 제삼성 祿星을 주고 가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아 이름을 斗英이라 하고 字를 天寶라 함.	일치	내용 축약 이름을 풍운	내용 축약 이름을 풍운
성장 과정	나이 별 성장과정이 서술되고 문무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리더쉽이 등장하며, 장도사에게 가서 점을 보고 이별에 대한 준비를 함.	일치	내용 축약 및 생략	내용 축약 및 생략
1차 이별	남방 오랑캐가 침입하자 황제가 장해를 부름. 이별할 때 寶刀를 두영에게 줌.	일치	내용 축약	내용 축약
금계산 생활	양씨가 두영을 데리고 금계산으로 피난 중 도적에게 두영을 빼앗김.	일치	내용 축약	내용 축약
두영의 1차 고난	두영이 紹興府 山下에 버려짐.	일치	일치	路中에 버려짐
양씨의 고난과 해결	양씨는 집이 모두 파괴되자 여남의 표절을 찾아 갔으나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가서 유리 표박하던 중 여승을 만나 단원사로 따라가 출가함.	일치	내용 축약	내용 축약
장해의 군담과 공	장해가 황제와 함께 남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그 공으로 부남백을 제수받아 부임함.	일치	내용 축약	내용 축약
×	×	×	장해가 진씨와 재취함	장해가 진씨와 재취함
두영의 1차 고 난 해결	이윤정에 의해 그의 집에서 최씨 소생인 경파와 경운 그리고 호씨 등과 같이 지냄.	일치	내용 축약	내용 축약
×	×	×	호씨가 독약으로 경파를 죽이려 함	호씨가 독약으로 경파를 죽이려 함
두영과 경파의 혼인	두영을 경운과 함께 공부시키다 나이가 되자 경파와 혼인을 시킴.	일치	일치	일치

- 8) 이창현은 「京板坊刻小説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1995), 153~161 쪽에서 경판본< 장풍운전>의 판본을 검토한 결과 경판 31 장본을 先本으로 확정했다. 유탁일은 『韓國文獻學研究』(亞細亞文化社, 1989), 135쪽에서 완판 36 장본은 서체의 검토를 통해 원간은 1857 년에 간행되었고 이어 후에 補刻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수용하면서 <金仙覺> 과의 관계를 살펴 피는데 완판 36 장본과 경판 31 장본을 선택했다 그리고< 장두영전> 인 경우는 거의 완역에 가까운 정도로 번역에 충실하고 전체가 남아 있는 박순호본을 선택했다.

<표 1> 계속

두영의 2차 고난	이윤정이 병을 얻어 죽게 되고 두영 부부에게 유서를 남기고 죽음. 이어 호씨의 박대는 더욱 심해지고 자객을 동원하여 죽이려고까지 하자 이윤정의 유서대로 두영이 경운과 함께 가출하고 결국 연경사에 가서 경운만을 두고 떠나 광대의 무리에 섞여 떠돌아 다님.	일치	내용 축약과 일부 생략	내용 축약과 일부 생략
경파의 1차 고난	두영이 경운과 함께 가출하자 경파에 대한 박대가 심해지고 호씨가 동생인 호천과 경파를 강제로 혼인시키려 하자 부친의 유서에 내용대로 가출함.	일치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경파의 1차 고난 해결	시비 자란과 함께 단원사로 가게 되어 출가를 했으며 그 곳에서 두영의 모친 양씨를 만나고 편안하게 지냄.	일치	내용의 축약	내용의 축약
두영의 2차 고난 해결	광대의 무리와 함께 돌아다니던 중 서주 구계촌에 이르러 왕상서를 만나 그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이별할 때 눈먼 광대와 특별한 이별을 함	일치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두영의 과거 급제	왕상서의 부탁으로 빛을 받으려 황성에 있는 원철의 집에 가 머물던 중 과거가 열리고 여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 하고 한림학사에 제수됨.	일치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두영과 황화의 혼인	두영이 과거를 보기 전 황화의 꿈에 두영이 장원급제를 암시함. 이를 계기로 두영은 황화를 첩으로 맞아들임.	일치	내용의 축약	내용의 축약
두영과 부용의 혼인	두영이 원철의 집으로 가기 전 꿈에서 두영의 미래가 암시되고 잠자는 두영에게 비단 저고리를 벗어 덮어준 것이 인연이 되어 혼인하고 두영의 둘째 부인이 됨.	일치	내용의 축약	내용의 축약
명현왕의 1차 구혼	명현왕이 딸 경화의 배필로 두영을 선택했으나 경파와 부용과 이미 혼인했음을 들어 거절함.	일치	×	일치
두영의 1차 출정	서번이 삼십육도 군장과 연합하여 변경을 침입하자 두영이 대원수가 되어 출정하여 매복 작전으로 모두 토벌함.	일치	내용이 축약	내용이 축약
두영과 식구들의 재회	1차 출정에서 승리하고 돌아도던 중 단원사에서 경파와 모친(양씨)을 만나고 이윤정의 산소에 제를 지내고 나서 호씨를 만나고 이어 연경사에 가서 경운을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친을 만남.	일치	내용이 축약 및 일부 생략	만나는 순서가 바뀌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축약 및 일부 생략
두영과 윤옥의 혼인	두영이 황성에 오고 식구들은 구계촌에 잠시 머물러 있던 중 황성에 집을 지어 모든 식구를 모셔오기 전에 황제는 윤옥을 하사해서 두영의 첩을 삼게 한다.	일치	내용의 축약 및 윤옥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생략	일치

<표 1> 계속

×	×	×	식구들이 모 두 모인 자리 에서 진씨를 소개함.	부남에 연락 해서 진씨를 불렀으나 이 미 사망함.
황성에 정착	황제가 별궁을 지어 두영에게 하사하고 두영은 모든 식구들을 그 곳에 데리고 각 처소를 정해 주고 함께 지냄.	일치	내용의 축약	내용의 축약
장해에 의한 주연과 가송	가정이 안정되자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은혜라고 하면서 연회를 열고 歌頌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함.	×	×	×
두영과 경화의 혼인	명현왕이 경화의 굳은 의지로 인해 황제의 힘을 빌어 두영과 강제로 혼인을 시킴.	일치	일치	일치
두영의 2차 출정	金狄의 침입으로 두영이 2차 출정을 떠남	일치	일치	일치
두영 집안의 갈등	두영이 없는 틈을 타 조부인(경화)이 이부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비 난항을 포섭하여 운향과 그의 남편 공철을 이용해 이부인을 음탕한 여자로 몰아감. 장해가 이 사건을 처리하던 중 황제에게 넘기게 되고 황제는 이부인이 출산 후 사형을 집행할 것을 결정하고 출산 후 사형 집행을 진행시킴.	일치	내용의 축약	내용의 축약
2차 출정에서 귀환중 한성과 재회	두영이 2차 출정에서 급적을 평정하고 돌아오던 중 한성을 만나고 이가 전에 눈먼 광대임을 확인하고 이어 윤옥의 부친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경과와 위기 상황이 급해 후일을 기약하고 헤어짐.	일치	×	축약이 조금 보이나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
두영의 귀환과 가정의 갈등 해결	두영이 돌아와 황제에게 경과에 대한 사건을 위임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사실을 모두 밝혀내고 죄에 맞게 벌을 줌.	일치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내용의 축약 및 일부 생략
윤옥과 한성의 재회	두영에 의해 가정의 내적 갈등이 마무리 되고 나서 한성이 찾아오고 이어 윤옥과 재회가 이루어짐.	일치	×	내용이 다소 축약되었으나 거의 일치함
경운의 출사	경운이 과거에 급제하고 출사함.	일치	일치	일치
옥운의 출사	옥운(두영과 경과 사이에 태어남) 이 과거에 급제하고 출사함.	일치	일치	일치
경운이 익주자사로 부임	경운이 벼슬을 하던 중 익주자사로 부임함.	일치	내용이 축약	내용이 축약
옥운이 서양국 왕으로 부임	서양국왕이 후사가 없이 즉자 황제는 옥운으로 하여금 서양국왕에 임명하고 식구들과 함께 서양국으로 감.	일치	내용이 축약	내용이 축약
서양국에 대한 묘사	옥운이 서양국에 도착하는 상황과 서양국에 대한 묘사가 극락으로 나타남.	일치	×	×

<장풍운전>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된 부분은 대부분 내용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거나 혹은 각종 문예문과 시에 대한 평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록 작품 전체의 내용이나 구조를 바꾸지 않지만 간간히 등장하는 새로운 화소들이다. 물론 이는 <金仙覺>과 <장두영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장해와 진씨 사이의 관계, 호씨가 경과를 죽이기 위해 독약을 쓰는 장면 그리고 풍운이 서양 태수에게 시켜 이통판의 산소로 제물을 갖춰 대령하게 하는 장면 등이다. 이는 <금선각>에서 <장풍운전>으로 변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단편적인 화소들이다.

나지면 국수를 힘쓰고 밤이면 처자를 생각하여 눈물노 세월을 보너더니 여러
히 지니미 홀로 잊지 못하여 직취를 구하더니 진회라 호는 스름이 중서령 벼
살하다ᄃ 퇴스 환향한지라 규슈 잇단 말을 듣고 구혼하디 허락하거날 즉시 녹
예로 마즈니 여공직질과 처스 실노 본바드리 업스되 시량은 부인과 풍운을 싱
각하야 희락이 업더라 각셜... 두 분인과 진씨를 구제촌으로 모신이라... 덩부
인이 양부인을 보시고 반기며 치하하고 또 진씨를 보고 문왈 이는 뉘시닛ᄃ
양부인이 왈 시량이 부남티슈로 계실지 취하신 진씨로소이다 덩부인이 듯고
못너 반기더라(완판 36장본).⁹⁾

경찍을 쥐겨 가너을 평안하리라 하고 일일은 독약을 죽의 너허 주니 경찍 밧
다가 헛노와 씌즈니 호씨 덕척하더라.¹⁰⁾

서량티슈의게 횡관하여 제물을 갖초와 녹님원 상으로 덕령하라 하고¹¹⁾

위의 예문이 진씨의 등장과 언급, 경과의 독살 장면, 서량태수에게 제물을 갖추
라고 명하는 장면의 전문이다. 물론 2차 출정 시 유부인과 이부인에게 각각 당부
하는 장면과 옥윤이 서양국으로 갈 때 이부인과 왕부인이 이별하는 장면도 추가

9) 경판 31장인 경우 장회가 진씨와 재취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진씨를 처리하는 과정은 “부남의 기별하여 진부인을 청하여오라 하더니 선시의 진부인이 밧서 기세하였느니라 장네를 갖초야 선산의 안장하고 표를 호고”로 처리하면서 진씨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 짓고 있다.

10) 경판 3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1) 경판 3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되지만, 위의 예문처럼 작품 전체의 내용이나 구조를 바꾸거나 주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 즉 각각의 화소들이 몇 문장 혹은 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 각 장면이나 인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단순한 변화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장면들이 비록 단순하고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필사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장풍운전>이라는 새로운 계열의 이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필사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변화라기보다는 <금선각> 계열에서 <장풍운전> 계열로 변하면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본다. 즉, 한문본 <금선각>이 향유과정에서 생략 및 축약의 형태를 통해 한문본 <장풍운전>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별성을 보이기 위한 의도된 변화다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내용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애초에 한문본의 형태를 따랐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는 <장풍운전>에 있는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 괴하고 드문 일린고로 이 책을 등서하이 부딪 효측하여 이 일을 본바들지
너다 이 책 번역하기 공부 즉지아니 부딪 유실치 말고 잘 간슈하압

위의 예문은 김동욱 소장 42장본의 필사기다. 여기서 ‘번역 이란 한문에서 국문으로의 번역을 의미한다. 필사자는 한문본 <장풍운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필사한 <장풍운전>과 모본이 된 작품 또한 한문본의 번역본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김동욱 소장 42장본(국문본) <장풍운전>의 원래 母本이 한문본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¹²⁾ 주인공의 이름이 분명 ‘풍운’으로 나오고 있으며, 전반부가 낙장되어 있어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경판 31장본에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물론 ‘이 책 번역하기 공부 즉지아니’에 대한 해석¹³⁾의 차이에 있어서 필사자가 직접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된 작품을 필사하였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사된 김동

12) 국문본을 그대로 필사하거나 한문본을 그대로 필사한 후 이를 번역본이라고 써 놓은 필사기는 없다. 물론 한문본을 국문으로 번역한 경우는 많이 나타난다

13) 이에 대한 해석은 첫째, ‘번역을 하면서 공력이 적지 않게 들었으나’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번역 공부를 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육 42장본 <장풍운전>은 번역된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그 모본이 <장두영전> 계열이었다면 필사 과정에서 단대본과 같이 축약 및 생략은 나타나더라도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혹은 없었던 화소가 첨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필사자가 전제한 한문본은 <金仙覺>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金仙覺>의 번역본인 <장두영전> 계열의 작품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존하는 김동욱 소장 42장본(국문본) <장풍운전>은 <금선각>에서 나온 한문본 <장풍운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¹⁴⁾

III. <金仙覺> 異本研究

1. 異本の 現況

<金仙覺>의 異本은 漢文本 <金仙覺>과 國文本 <장두영전> 그리고 국문본 <장풍운전> 계열이 있다. 첫째 한문본 <금선각>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¹⁵⁾ 고려대학교 한적실 소장본,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소장본, 정명기 소장 53장본, 정명기 소장 49장본, 유재영 소장 복사본,¹⁶⁾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김준형 소장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등 9종이 있다. 둘째 국문본 <장두영전>은 박순호 소장본¹⁷⁾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¹⁸⁾ 그리고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셋째 국문본 <장풍운전>은 우선 필사본은 박순호 소장 48장본,¹⁹⁾ 57장본·76장본·

14) 우리 고소설의 연구에 있어 작자의 추정이나 한문본과 국문본의 선후문제 혹은 한문본의 존재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는 실증적 자료와 정황적 증거를 더불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논의는 실증 자료로써 ‘필사기’와 그 외의 정황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15) 이하 이본의 명칭을 ‘소장처(자)+본(장수+번)’으로 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도’, ‘고려대학교’는 ‘고대’, ‘육당문고’는 ‘육당’, ‘연세대학교’는 ‘연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은 ‘단대’로 한다.

16) 정명기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복사본을 참고로 했다.

17) 소장자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두영전이라는 항목에서 해제를 통해 이 작품이 <장풍운전>과 인명, 지명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을 들어 두 작품 간의 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18) 이후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인 경우 ‘성대본+표제’의 형식을 사용할 것이다.

52장본·77장본·64장본·56장본·67장본,²⁰⁾ 42장본,²¹⁾ 김광순 소장 66장본·54장본,²²⁾ 김동욱 소장 42장본·54장본,²³⁾ 강문중 소장 37장본, 충남대학교 소장 71장본이고, 방각본은 완판 36장본²⁴⁾·경판27장본·경판 31장본²⁵⁾이 있으며, 구활자본 16장본²⁶⁾ 등이 있다.

2. 異本の 存在 樣相

1) 漢文本 <金仙覺> 계열

국도본은 책의 크기가 25.0×21.0이며 1책 79장으로 되어있다 대체로 한 면에 12행 정도로 되어있으며, 각행에 20~21자로 되어 있다. 필사기 및 간기가 없어 시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고대본은 책의 크기가 26.5×21.3이며 1책 80장으로 되어 있다. 국도본과 각행의 글자의 차이가 한두 자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다. 끝 부분에 ‘歲在庚辰孟秋書’라는 필사기가 있으나 정확한 필사시기를 추정하기는 힘들다. 육당본은 책의 크기는 28.1×21.5이며 上下卷2책²⁷⁾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한 면에 9행으로 되어 있으며 각행이 20~21자로 되어 있다 상권인 경우 60장으로 되어 있고, 하권인 경우는 44장으로 되어있다. 육당본 역시 위의 두 이본과 일치한다. 심지어 글자가 틀렸을 경우 일부러 고쳐 쓴 흔적²⁸⁾을 보면 필사자는 모본을 그대로 필사하려 무척 애쓴 것을 알 수 있다.

정명기 53장본은 표제가 <金僊覺>으로 되어 있으나 내제는 <金仙覺>으로 되어

19)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2 권

20) 이상 위의 책 85권.

21) 위의 책 86권.

22) 김광순 소장, 『韓國古小說全集』 34 권

23) 김동욱 54장본은 朴鍾洙 編, 『羅孫本 筆寫本古小說資料叢書』 53, 김동욱 42장본은 같은 책 54권에 영인되어 있다.

24) 이상 김동욱 편, 『古小說板刻本全集』 二.

25) 위의 책, 五.

26) 仁川大學 民族文化研究所,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31 권 이하<장풍운撰 이 이본 명칭을 필사본인 경우 ‘소장자+장본’ 방각본과 구활자본은 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7) 국도본과 고대본의 1~9회가 육당본 권지 상을 이루고 있으며, 10화~15회가 권지하를 이루고 있다

28) 육당본 권지하 첫 장 b면 6행 14번째 글자가 斗→元, 끝에서 두 번째 장 a면 4행 16번째 글자 我→居, b면 9행 7번째 글자가 呼→乎로 고친 흔적 등 이러한 흔적은 많은 곳에서 보인다

있다. 크기는 18.3×28.8이며 1책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한 면에 12행, 각행 30자 내외로 되어있다. 정명기 49장본은 크기는 20.8×21.8이며 1책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한 면에 16행, 각행 24자 내외로 되어 있으나 글자 수의 변화가 심하다. 구결이 달려 있으며, 4회의 두 번째 제목 ‘入延瓊寺去留分袂’이 빠지고 9회의 첫 번째 제목에서 끝에 두 글자인 ‘握手’가 ‘相握’으로 나와 있다. 유재영본은 1책 56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한 면에 15행, 각행 24자 내외로 되어있다. 앞에는 목차가 나오고 뒤에는 발문이 실려 있다. 특히 본문의 앞 두면과 5회 중간에 한 면은 글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체와 내용도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낙장된 면을 비워 두었다가 후에 누군가에 의해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내용면에서는 다른 이본들과 차이가 없다.

연세대본은 크기가 23.5×20.4이며 1책 62장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한 면에 12행, 각행 25~29자 내외로 되어 있으나 각행 글자수의 변화가 심하다. 맨 끝장에 필사기로 보이는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뜯겨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본은 2권 1책 71장으로 되어있으며 한 면에 10행 각행 24자로 되어 있다. 癸未年 菊秋(9월)에 필사 되었으며, ‘陰城進士申公景源著’라는 기록이 있다.²⁹⁾ 이 이본은 우선 저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이본이다.

성대본 <張斗英傳>은 표제에서 <장두영전>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제에서 ‘張斗英傳卷之單 金仙覺’이라고 적혀 있다. 크기가 17×24.8이며 1책 103장으로 되어 있고, 대개 9행, 각행 20여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雜說> 7장이 합철되어 있어 이 책의 총 장수는 110장이다. 특히 앞 2장은 종이의 질과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묶인 상태가 아니라 붙여 있다. 이는 낙장된 부분을 누군가가 필사하여 붙인 것으로 보인다. 각 장에 장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60장의 장수 표시가 중복되어 장수 표시는 102장으로 되어 있다. 이 이본이 다른 한문본 <금선각>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15회에서 ‘西洋國’과 ‘西洋王’이라는 명칭이 ‘琉璃國’과 ‘琉璃王’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문장이나 글자의 첨삭 없이 용어를 그대로 바꿔놓은 것처럼 다른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명칭만 다르게 나타난다. 표지에는 ‘張斗英 卷之單’, ‘張斗英傳 □□□’, ‘丙辰三月初五日始爲□集’, ‘冊主忠淸南道保寧

29) 김준형, 앞의 논문

郡岬山面開花里居俞福永’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한문본은 아홉 종류가 있다. 김준형본을 제외하고 모든 이본을 면밀히 검토 해 본 결과 글자의 차이, 어순의 변화, 글자나 혹은 간단한 句節의 첨삭 등의 차이와 본문에서 문단 나뉘는 유무 등의 형태상 차이가 있을 뿐, 작품의 구조와 내용 등의 차이는 없다³⁰⁾

2) 國文本 <장두영전> 계열

박순호본은 1책 73장으로 되어 있다. 한 면에 14행 각행 24자 내외로 되어 있다 表題는 <張斗英傳>으로 되어 있으며 內題는 <장두령전 단> 그리고 권수제는 <장두령전 권지상>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 ‘辛未二月二十四日’, 내지에 ‘을묘 십월 초일일 서호노라’와 끝에 ‘大正五年拾二月貳拾貳日絶筆閣停 振威郡玄德面岐山里 이라 적혀 있다. 이와 같은 정보로 보아 필사자는 지금의 평택시 현덕면 일대의 지역에서 1915년 혹은 1916년 10월 1일에 필사를 시작해서 12월 22일에 필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지는 辛未年(1931) 2월 24일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³¹⁾

이 이본은 각 회의 제목을 번역해서 달고 있으며 약간의 축약과 생략이 보인다. 4회에서 단원사 승과 두영이 수창한 시 두 편은 원문을 그대로 필사 했으며 그 시에 대한 평은 역시 완역되었다.³²⁾ 그리고 11회에서 장해가 식구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열어 歌頌을 통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는 장면에서 장해의 대화가 약간 축약되었고, 그 이후에 지은 詩들과 그 시에 대한 평은 모두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그리고 14회에서는 2차 출정에서 돌아와 위기에 처한 이부인을 일단 구하고 나서 황제에게 사건을 위임받을 목적으로 올린 表文이 축약되어 번역되었다. 그 외에는

30) 김준형 소장본은 참고하지 못했으나 김준형 선생님께서 구두로 다른 이본과 비교해서 내용상 차이는 없다고 알려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31) 필사자는 乙卯年(1915)과 大正五年(1916)을 같은 해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1915년 10월 1일부터 1916년 12월 22일에 걸쳐 필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이는 필사자가 干支와 年號에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준형은 ‘辛未年’을 1934년이라 적고 있는데 김준형 앞의 논문, 134쪽) 辛未年은 ‘1931’년이다

32)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형은 삽입 문예문의 처리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장두영전>에서는 ‘시를지어 화답하고 서로 떠’나고.. <금선각>에서 볼 수 있는 미감이 <장두영전>이나 <장풍운전>에서는 사라져 있다”(김준형 앞의 논문 157쪽)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장두영전>을 단대본으로만 협소화시키는 데에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상대본 <張元帥傳>인 경우에도 완역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번역 양상으로 봐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완역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삽입된 문예문을 비롯해서 완역되었다. 이처럼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이 이본은 <金仙覺>각의 완역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성균관대학 소장본은 우선 표제가 ‘張元帥傳’으로 되어 있으며 내제는 없다 크기가 21.8×23.7이며, 1책 49장으로 되어 있다. 이 이본은 70여세 정도 된 노인이 직접 번역했다.³³⁾ 한문본 기준으로 10회~15회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첫 장에 10회~15회의 제목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적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봐서 이 이본은 <금선각>을 번역하여 2책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을 기준으로 분량을 살펴보면 회수에 상관없이 1회~9회까지가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30장과 31장 사이에 1장이 낙장이다. 이는 책을 다시 製冊하는 과정에서 낙장되었거나 혹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보면 처음에 실이 통과했던 구멍이 지금 묶인 부분과 다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이본은 한문본 <금선각>을 철저히 완역했다. 박순호본에서 축약하거나 생략한 부분인 歌頌을 통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부분에서 조차 완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詩들은 번역되지 않고 국문으로 음만 적고 있으며, 장해의 평은 그대로 완역하고 있다.

단대본은 책의 크기는 24.3×20.7이며 1책 62장으로 되어 있다. 表題가 <張杜靈傳卷之單>으로 되어 있고, ‘무술월일필샤 라고 적혀 있으며, 내제는 <금선각 장두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뒷 표지에는 ‘甲辰元月譯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각 干支에 해당하는 연도는 추정하기가 어렵다. 번역 과정에서 15 회에 해당하는 각 회 의 제목이 생략되어 회 의 구분이 사라졌다. 내용상의 흐름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이야기들이 추가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번역의 양상은 축약, 생략, 완역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 <금선각>에 삽입된 문예문은 2 회에서 祭文 1 편, 4 회에 詩 2 편, 9 회에 시 1 편, 上書 1 편, 제문 1 편, 10 회에 시 1 편, 11 회에 시 8 편, 12 회에 書簡 1 편, 13 회 書簡 2 편, 14 회에 表文 1 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시와 그에 대한 평들은 번역 과정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그 외의 문예문은 심하게 축약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군담과 고난담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갈등담(특히 장해의 사건 재조사 장면)은 거의 완역을 하고 있다. 이

33) 이 사실은 이 이본의 끝 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필사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축 십월 초사일
칠십 세 웅이 심〓 하기의 진서 소설을 번역하느 정신업고 눈 어둡고 슈견증 잇고 펠목 그르니
글시 안되코 오즈나셔 만고 말도 되지만지하느 망돌호초 호호여씨니 부인년도 가이 불만히니라.”

를 통해 본다면 번역 양상은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생략과 축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번역 양상은 <금선각>의 독서 과정에서 지향했던 독자들의 관심이 흥미성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³⁴⁾ 위의 내용을 통해 박순호본 <장두영전>과 성대본 <장원수전> 그리고 단대본 <장두영전>은 내용이나 구조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단대본 <장두영전>의 번역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이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어느 한 이본을 반복해서 필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과정을 통해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³⁵⁾

3) 國文本 <장풍운전>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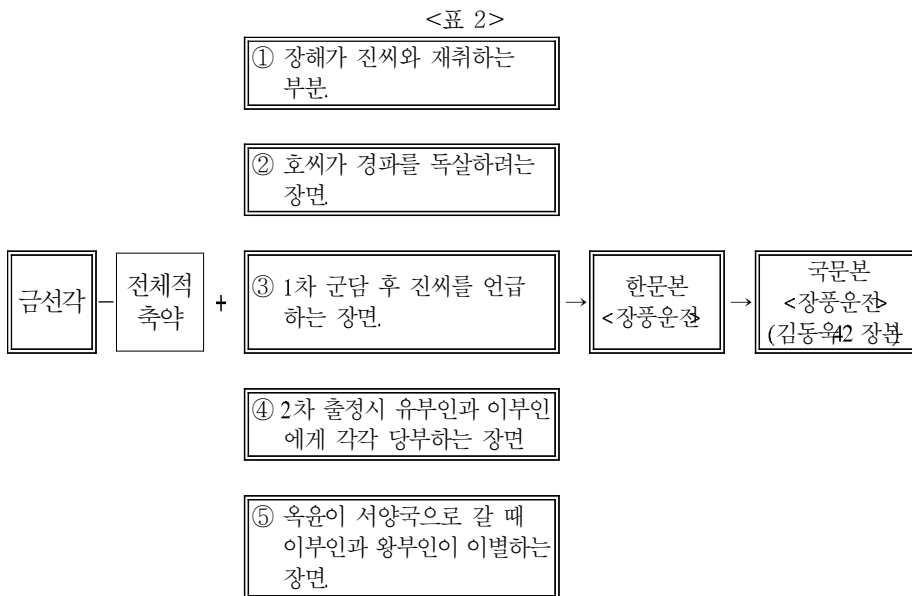
첫째, 김동욱 42장본이다. 필자는 앞에서 한문본 <장풍운전>의 존재를 상정했다. 그렇다면 국문본 <장풍운전>을 살펴보기 전에 한문본의 형태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번역본임을 밝히는 김동욱 42장본을 한문본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는 이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이본은 낙장이며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원철의 집에서 왕상서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어 중간에 다시 낙장을 보이다가 1차 군담의 중간부터 시작된다. 2차 군담이 생략되지 않고 적과 대치하여 전투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밖에 윤옥과 한성(눈먼 광대)에 대한 내용은 <금선각>에서 조금 축약되었을 뿐 동일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1차 군담 후 진씨를 불렀으나 이미 사망해 있다는 내용, 풍운이 2차 출정 시에 유부인과 이부인이 걱정이 되어서 각각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내용, 옥운이 서양왕이 된 후 서양으로 갈 때 이부인을 데려 가는데, 이때 이부인과 왕부인의 이별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금선각>과 <장두영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낙장된 부분의 형태를 추정하기에 가장 알맞은 이본이 박순호 67장본이다. 이 이본과 김동욱 42장본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일치함을 보인다. 그 다음에 완판 36장본과 경판 31장본인 경우도 명현왕의 1차 구혼의 有無를 제외하고 박순호 67장본의 앞부분과 일치한다. 즉 박순호 67장본·완판 36장본·경판 31장본에서 1차 군담 직전까지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순호 67장본과 김동욱 42장본의 1차 군담 이후가 또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김동욱

34)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강문중, 앞의 논문, 57~62쪽에서 자세히 다뤘다.

35) 지면의 한계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각 번역본의 모본 확정을 위한 연구 등은 과제로 남긴다.

42장본의 낙장 부분은 박순호 67장본·완판 36장본·경판 31장본의 앞 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한문본 <장풍운전> 과 그 번역본인 김동욱 42장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금선각> 에서 파생되었다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김동욱 42장본 계열은 <금선각> 에서 전체적으로 축약을 보이면서 동시에 ①~⑤36의 내용이 추가되어 형성된 한문본 <장풍운전>의 번역본으로 형성되었다. 이 계열의 이본으로 박순호 67장본이 있다

둘째, 경판본 31장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차 군담 전까지는 박순호 67장본과 완판 36장본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앞부분에서 명현왕의 1차 구혼이 박순호 67장본과 완판 36장본에서와는 달리 간단히 언급된다. 그러므로 1차 군담까지는 별 차이 없이 김동욱 42장본 계열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군담 이후에도 각 장면들이 대체적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보인다. 경판 31장본이 완판 36장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윤옥과 그녀의 부친인 한성에 대한 부분이다.

36) ①과 ②는 박순호 67장본과 경판 31장본 그리고 완판 36장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위의 세 이본에서 추정했다.

이 부분은 <금선각>과 <장두영전>의 모든 이본들을 비롯해서 김동옥 42장본에 매우 비슷하게 등장한다. 경판 31장본은 이 부분이 유난히 강조되고 그 분량도 김동옥 42장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 외에 경판 31장본은 김동옥 42장본에서 축약되는 부분은 보이지만 생략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는 완판 36장본이다. 역시 1차 군담 전까지는 박순호 67장본과 경판 31장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군담 이후에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특히 윤옥과 그녀의 부친 한성의 이야기는 완전히 생략해 버린다. 그러나 경판 31장본과는 달리 많은 장면에서 김동옥 42장본 계열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두 방각본은 김동옥 42장본 계열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다. 그러므로 경판 31장본과 완판 36장본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 3>

	김동옥 42장본 계열의 내용	경판 31장본	완판 36장본	
		수용	③번 변용	
김동옥 42장본 →	①~③번 내용	수용	③번 변용	경판 31장본
	㉠ 1차 군담 후 식구들과의 재회	순서 변용	수용	
	㉡ 이통판 산소에서 제를 지낼 때 지은 제문	수용	생략	
	㉢ 1차 군담 후 식구들과 황성에 도착한 부분~식구들의 처소를 정하는 부분	축약	수용	
	④번 내용	축약	생략	
	㉣ 양부인이 이부인을 변호하는 부분	축약	수용	완판 36장본
	㉤ 이부인이 수감 중에 왕부인과 이부인 사이에 오고간 2편의 편지	축약	수용	
	㉥ 경운과 왕부인의 대화	축약	수용	
	㉦ 이부인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	축약	수용	
	㉧ 경운이 익주자사로 부임하는 과정	축약	수용	
	⑤번 내용	생략	생략	
	㉨ 옥윤이 서양국으로 부임하는 과정	축약	수용	
	㉩ 윤옥과 그녀의 부친인 한성에 대한 모든 장면	수용	생략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경판 31 장본인 경우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했으나 각 장면들은 축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부분에서는 김동욱 42장본 계열의 내용과 순서가 바뀌어 나타난다.³⁷⁾ 특히 ㉠부분은 경판 31장본과 완판 36장본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경판 31 장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되면서 거의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으나 완판 36 장본에서는 완전히 생략하여 등장인물에서 제외될 정도다. 이와는 반대로 완판 36 장본에서는 인물을 둘러싼 사건은 생략한 부분이 있으나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적인 장면들을 김동욱 42장본 계열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3. <장풍운전> 異本의 형성

1) 김동욱 42장본 계열 형성

현존하는 김동욱 42장본 계열은 그리 많지는 않다. 다만 한문본 <장풍운전>의 번역본이므로 이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선 형태의 이본이다. 이 이본 계열에는 박순호 67장본이 있다. 이 이본 역시 끝 몇 장이 낙장 되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은 김동욱 42장본과 거의 일치함은 앞에서 언급했다. 다만 작은 변화가 보인다. 1차 군담 후 진씨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동욱 42장본인 경우는 진씨를 불렀으나 부남에서 得病하여 죽었다고 처리하는데 비해 박순호 67장본에서는 데리고 와 소개하는 장면으로 처리한다. 그 형태가 완판 36장본 계열과 비슷하다. 그리고 끝부분 중에서 유씨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김동욱 42장본에서는 능지처참하라고 명하고, 박순호 67 장본에서는 칼로 배를 갈라 죽이라고 명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작품 전체적으로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2) 경판 31 장본 계열 형성

경판 31 장본계열 이본은 경판 27장본 · 김광순 54 장본 · 충남대 71 장본 · 활자본 16장본³⁸⁾이 있다. 김광순 소장 54장본은 경판 31 장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고, 경

37) <금선각>, <장두영전> 등과 함께 이 부분에서는 이부인(경과)과 모친을 만난 다음 이통판 산소에 제를 지내고 호씨를 만난 후 연경사로 가 경운을 만난다. 그러나 경판 31 장본에서는 연경사에 먼저 가 경운을 만나고 다음으로 이통판의 산소에 제를 지내고 호씨를 만난다.

판 27장본은 문장을 약간 축약하였다. 제문과 2차 출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한성을 만나는 장면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끝에 서양국 왕이 옥운이 아니라 풍운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경판 27장본이 경판 31장본의 일부를 생략하고 약간 축약하였으며, 결말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충남대 71장본은 명현왕의 1차 구혼 장면을 생략한 것을 제외하면 경판 27장본과 거의 비슷하다. 활자본은 경판 31장본의 전반부 즉, 풍운이 일차 출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식구들을 만나는 부분까지를 따로 독립시켜 이루어졌다. 다만 끝부분이 다소 큰 변화를 일으킨다. 풍운이 부친을 만나는 부분까지는 경판본 31장과 일치하지만 그 이후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서 변화가 보인다. 이처럼 경판 31장본에서 경판 27장본·김광순 54장본·충남대 71장본·활자본 16장본이 파생되어 형성되면서 경판 31장본 계열을 이루고 있다.

3) 완판 36장본 계열 형성

박순호 48장본³⁹⁾·57장본·52장본·64장본·76장본⁴⁰⁾·56장본⁴¹⁾ 김동옥 54장본⁴²⁾ 강문종 37장본은 모두 완판 36장본과 일치하고 있어 이본으로서의 차이가 없다. 한편 박순호 77장본·42장본, 김광순 65장본 등은 완판 36장본과 구조나 내용이 모두 일치하지만 약간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

우선 박순호 77장본은 모친과 경과를 만나고 연경사에 들러 경운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에서 바로 황성에 거처가 없으므로 먼저 가서 집을 마련하고 나서 모시러 오겠다고 하며 떠나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⁴³⁾ “머므딘 정을 잊지 마오소서

38) 永昌書館, 1925년

39) 이부인이 황옥에 갇히고 이어 편지를 주고받는 데 왕부인 편지 이후로 낙장됨.

40) 첫장 일부가 찢겨짐.

41) 앞 부분 2/3면 정도를 할애해서 송나라 전까지의 왕조를 간단히 언급하고 장효의 조상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태몽이 생략되었다

42) 절강 장도사를 찾아가는 부분부터 시작되고 이전은 낙장되었다. 그리고 끝에도 일부 낙장됨

43) 이 부분은 ‘연경사를 떠나 주점에 도착→경과를 만남→황제 의 특명(양씨를 공부인으로)→운주에 도착→각도·각읍 수령들을 모아 잔치→장도를 매개로 부자 상봉(장해가 장도 발견→장도의 내력 설명→풍운에게 장도를 준 사연→부자임을 확인)→황제에게 그간의 사연을 상소하자 황제의 칙서가 내림→구계촌에 도착→왕상서와 정부인 등에게 식구들을 모두 소개→집을 마련한 후 모시기로 해서 황성으로 감으로 이루어진 상당한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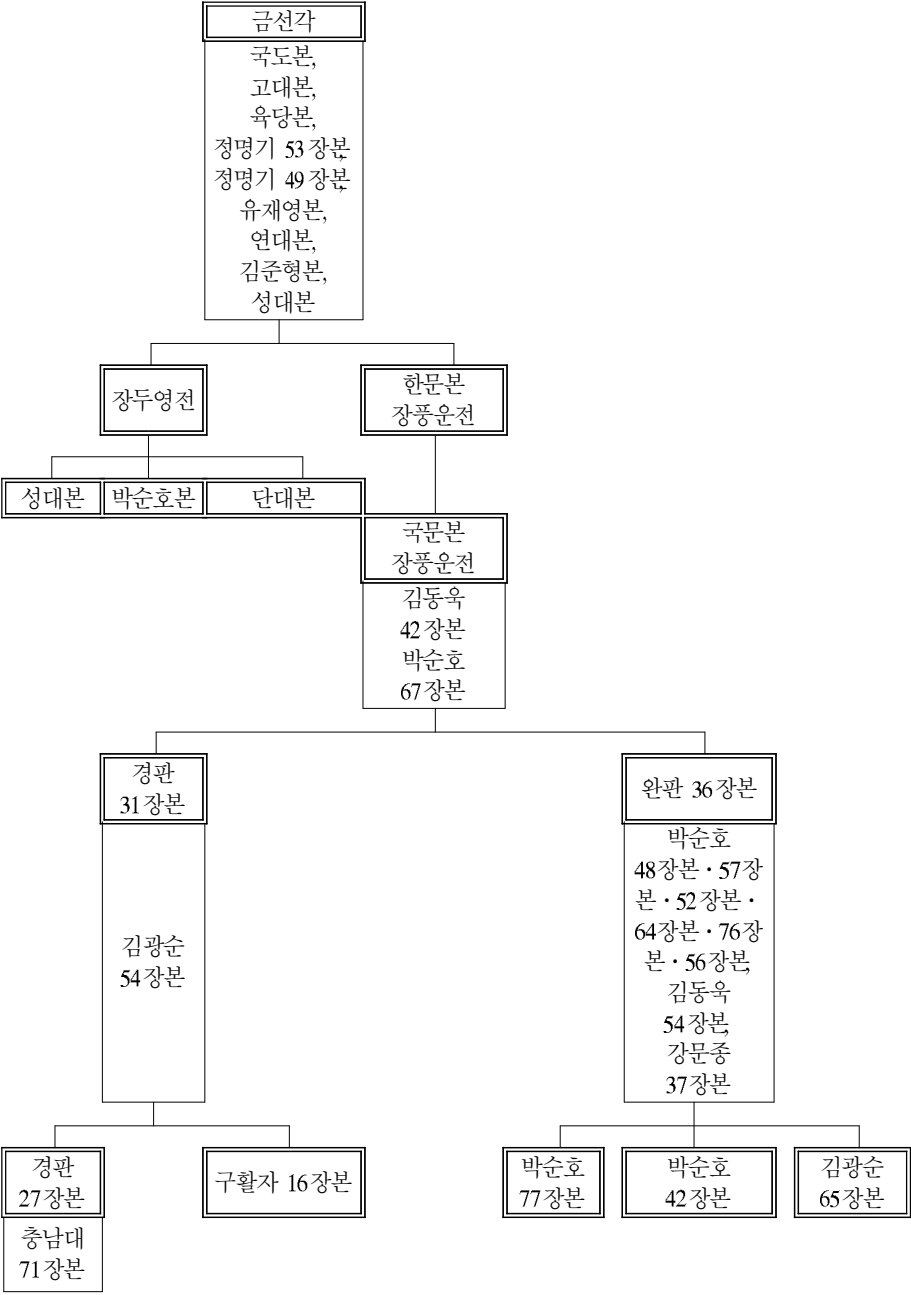
경운이 못내 치사하며 제승의게 호직흔이 묻저 올나가 집을 정흔 후의....”로 빠져 낙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박순호 42 장본은 식구들이 모두 구계촌에 올 때 풍운이 황상에게 글을 올려 호씨의 잘못을 논하고 조정에서 이 사실을 논한 후에 호씨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추가 되었다.⁴⁴⁾

김광순 65장본은 <장풍운전>의 전반부만을 독립시켜 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끝부분의 변화가 심하며, 특히 전반부에서 끝을 맺기 때문에 풍운의 자식인 옥운의 이야기가 전면 생략되어 있다. 또한 눈먼 광대의 이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 한성과 윤옥이 등장인물에서 제외된다. 1차 군담에서 서번, 서달, 삼십육도, 군장 모두를 물리치고 그 결과를 황제에게 주달하는데, 그 내용이 이 이본에서는 중복해서 등장한다. 특히 이 내용은 다른 <장풍운전> 이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박순호 77장본은 일부를 생략했으며, 박순호 소장 42 장본은 일부를 추가 했으며, 김광순 65 장본은 완판36 장본의 전반부의 내용을 따로 분리시켜 약간의 문장의 변화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첨가시켜 구성된 이본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조는 활자본과 동일하나 생성과정과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완판 36장본에서 박순호 48장본·57장본·52장본·64장본·76장본·56장본·77장본·42장본, 김동욱 54장본, 강문중 37장본, 김광순 65장본 등이 파생되어 완판 36장본 계열을 이루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 즉 호씨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게 첨가된다. 그러나 “할님이 황상께 엿자오되 세상의 사람마다 인지정은 사람 뿐 아니라 천지간의 금슈라도 인정은 있난비라 허물며 사람이야 무삼 죄가 중하여 호씨의 불칙지환을 보고 도로여 호씨의 마음을 안존할 뿐 아으로라 너 몸미 할님학사 홀 쥔썰러 부모를 일코 동셔기결하온 몸미 일” 되어신니 부인과 시비 잘안과 시비 옥미를 달이고 호씨을 디혀 일운 말삼을 엿지 다 하울잇가만은 디강 말삼흔온니 자셔의 들러 봄소 사람이라 한난 범비남무 후 실부모 되기도 열어고 혹 나무 자식 되기도 열어온나 천하의 디도 못흔 무암을 너러 집안이 다 손동하계 하여신이 엿지 망극지 안이 할으로 돛시 천슈라 한탄흔 돌라 와던니 황제 하교하시고 이 말을 들인 비 조정 공논이 호씨을 전옥의 슈금하라 하여 신니 무사 달여드러 자바다가 전옥의 슈금하라”라는 예문과는 달리 끝 부분에 가서는 경운이 익주자사가 되어 부임 중 이 통판 묘를 소분하고 호씨를 찾아갔으나 이미 별세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위에 제시한 내용과 모순을 이루고 있으며 이 내용은 완판 36장본계열과 일치하고 있다.

<표 4>



IV. <金仙覺> 異本の 변모와 그 의미

그런데 위의 결과에서 다시 한 부분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금선각>에서 <장두영전>으로 이어지는 이본계열에 비해 <금선각>에서 한문본 <장풍운전>을 거쳐 국문본 <장풍운전>으로 정착된 이본계열이 보다 집중적이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출판의 영향으로 보인다. 즉, 방각본으로의 출판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주지하듯이 방각본 소설의 출판은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 木板 인쇄기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업성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일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흥미성과 출판비를 줄여야 하는 경제성이다. 만약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출판업자들은 그것을 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흥미성이 작품과 이를 향유하는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경제성은 출판업자의 몫이다. 이 경우 출판비의 최소화라는 경제성은 결국 작품의 분량과 일정한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내용이나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에서 흥미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약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각본 소설 출판의 특징을 통해 본다면 <장두영전>과 같은 번역본 보다는 <금선각>의 화소를 그대로 수용하여 내용의 흐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축약과 생략을 통해 분량을 줄인 <장풍운전>이 방각본 업자들에게 채택되기 쉬웠을 것이다.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내용 중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예문이나 사건과 사건의 연결을 방해하면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생략하거나 혹은 축약시켰다. <장풍운전>의 이러한 특징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도 독자들의 성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방각본 업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각본 업자가 <장두영전>보다는 <장풍운전>을 선택해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선각>과 <장두영전>의 이본이 현재 12종이 남아있다. 실재하는 이본 수를 통해 볼 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각본 업자들은 독자와의 관계와 경제성을 고려해서 한문본 <장풍운전>의 번역본인 김동욱 42장본 계열의 국문본 <장풍운전>을 모본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둘째는 통속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는 방각본 출판을 계기로 대중의

기호에 맞게 작품의 내용과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통속화의 방향이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인물과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경판본 31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극적인 장면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완판 36장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경판본 업자가 택한 부분과 완판본 업자가 택한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이 듯 경판본의 출판업자는 인물과 사건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축약하면서 그 흥미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풍운의 1차 군담에서 승리를 거두고 회군하던 중 헤어졌던 식구들을 모두 만나고 황성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부분까지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순서의 변화나 혹은 축약을 통해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경판본 업자들이 선택한 것은 상투적인 가정 내의 갈등에 윤옥과 한성을 등장시켜 사건을 보다 다양하고 흥미롭게 이끌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금선각> 이나 <장두영전>에서도 같은 위치에 등장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생략과 축약을 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 풍운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같이 했고, 헤어질 때 각별한 정을 졌던 눈먼 광대와 인연이 이어지게 된다. 눈먼 광대는 역적 행위로 몰락한 한성이었으며, 그의 딸은 황제에 의해 궁녀로 지내다 풍운의 첩이 된다. 이후 풍운의 2차 원정의 성공으로 돌아오던 중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황제에게 부탁해서 한성을 역적의 신분에서 신원시켰으며 애첩인 윤옥과 재회한다. 독자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고 흥미성은 배가된다. 이는 특정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연결된 사건을 부각시켜 흥미성을 더욱 높이게 된 것이다.

반면 완판본 업자들은 사건을 최소화 시키고, 결정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비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흥미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㉔~㉑의 장면은 가장 극적이고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면들이다. ㉔는 이부인이 유부인에게 부정한 여자로 모함을 당하여 장해에게 매를 맞고 문초를 당하는 부분에서 양부인이 오해임을 눈물로 간청하는 부분이고, ㉕는 왕부인이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는 내용의 편지를 옥에 갇힌 이부인에게 보내고 이어 이부인이 死後를 모두 왕부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다. ㉖는 왕부인이 경운으로 하여금 풍운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경운의 슬픈 모습과 男妹

간의 애뜻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㉔는 이부인이 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가는 장면이다. 이 부분에서 아들인 옥윤 그리고 집안 식구들과 눈물바다를 이룬다

이처럼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을 극대화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증가시킨 후 풍운이 돌아와 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감동의 수치를 높이고 있다. 극한 상황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으로 인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은 보다 큰 감동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㉕와 ㉖부분은 경운과 이부인이 각각 익주와 서양국으로 가던 중 자신이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낸 곳(경운: 연경사, 이부인 일행: 단원사)에 들러 은혜를 갚고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하는 장면이다. 역시 애뜻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완판본 업자들은 경판본 업자들과는 달리 인물이나 사건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결정적인 장면들을 극대화시키면서 흥미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방각본 업자들의 변별적 전략을 통해 이 이본들은 급격히 독자들에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장풍운전>은 이렇게 방각본 출판으로 인해 대량출판과 대량 유통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많은 필사본들을 낳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문독자들에게 한문본 <금선각>과 국문본 <장두영전>이라는 이본의 형태 보다는 <장풍운전>이라는 이본이 독서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문본 <금선각>의 이본의 변모 과정을 통해 번역본 <장두영전>이 국문독자들에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취향에 맞는 <장풍운전> 계열의 이본이 국문독자들에게 확대되고 정착되는 현상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소설이 상업화되고, 상업화의 주체들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출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중독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통속화된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금선각> 이본의 변모 과정은 우리 고소설의 대중화되는 과정 즉 작품과 출판업자 그리고 대중독자들이 만들어낸 고소설의 유통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금선각>이 <장풍운전> 계열의 이본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한문본으로 된 소설(<금선각>)이 번역본(<장두영전>)과 또 다른 계열인 한문본(<장풍운전>)을 형성하고, 이어 새로 형성된 한문본(한문본 <장풍운전>)의 번역본(국문 필사본 <장풍운전>)을 거쳐 경판과 완판으로 나뉘어 방각본으로 출판되고 그 방각본들을 모본으로 필사본이 유통되는 고소설의 유통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18세기 후반에 창작된 한문장편소설 <金仙覺>과 <장두영전> 그리고 <장풍운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금선각>과 박순호본 <장두영전> 그리고 <장풍운전>의 이본 중 완판 36장본과 경판 31장본을 살펴본 결과 <장풍운전>은 <금선각>의 이본임이 밝혀졌다. 나아가 <금선각>과 국문본 <장풍운전>을 연결시켜주는 한문본 <장풍운전>의 존재를 상정했다. 그 결과 <금선각>의 이본은 한문본 <금선각>계열과 이를 번역한 <장두영전>계열 그리고 한문본 <장풍운전>과 이를 번역한 국문본 <장풍운전>계열로 나눌 수 있었다. 다시 국문본 <장풍운전>계열을 정치하게 검토한 결과 김동옥 42장본·경판 31장본·완판 36장 등의 계열로 나눌 수 있었다.

끝으로 <금선각> 이본의 변모 과정과 그 의의를 방각본 출판과 통속화 과정이라는 고소설 유통구조 속에서 살펴보았다. 번역본인 <장두영전>계열에 비해 <장풍운전>계열로 보다 다양한 분화를 보이는 이유를 방각본 소설 출판의 특징을 통해 고찰하였다. 흥미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금선각>의 화소를 충실히 수용하면서 생략과 축약을 통해 분량이 줄어들게 된 <장풍운전>이 출판업자들에게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중독자의 성향을 고려한 흥미성과 출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등장인물과 연결된 사건의 강조를 통해 흥미성을 확보하면서 등장한 경판 31장본 계열과 극적인 장면들의 극대화를 통해 흥미성을 확보한 완판 36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구활자본과 필사본들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한문본 <금선각>이라는 작품은 <장풍운전> 계열의 이본으로 변모되면서 보다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소설 유통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참고문헌

이병기, 「朝鮮語文學名著解題」, 『文章』 2卷8號 1940.

유탉일,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이창현, 「장풍운전」. 김진세 편,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서울: 집문당, 1990.

_____, 「京板坊刻小說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5.

강문중, 「<金仙覺> 연구」, 『청계노총』 5·6합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김준형, 「<金僊覺> 발굴과 소설사적 의의」, 『古小說研究』 18 집, 2004.

● 투고일 : 2005. 1. 31.

● 심사완료일 : 2005. 2. 21.

● 주제어(keyword) : <금선각(*Geumseongak*)>, <장두영전(*Jangduyoungjeon*)>, <장풍운전(*Jangpungunjeon*)>, 이본의 파생(derivation of different versions), 방각본 출판(the publication of Banggak editions), 통속화 과정(popularizing procedure), 고소설 유통구조(the old story's circulation structure), 대중독자(the masses of readers).